실외 마스크 해제 후 첫 연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없을 듯

방역당국, 확진자 수 감소세 예상
급격한 활동량·외국발 변이 변수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후 첫 연휴로 인해 우려했던 대규모 감염 상황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도 확진자 수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에 따른 급격한 활동량 증가, 외국발 변이 유입 등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광주 1597명, 전남 1900명 등 3497명이 신규 확진됐다. 광주는 집단감염이 14명(0.9%)에 머물렀다. 전남은 시·군별로 순천 301명, 여수 260명, 광양 181명, 목포 170명, 나주 138명 등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도 이날 4만 명이 조금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4만64명 늘어 누적 1754만439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2주일 전인 지난달 24일(6만 4699명)보다는 2만4635명 줄었지만, 1주일 전인 지난 1일(3만7761명)보다는 2303명 증가했다. 전주 같은 요일 대비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한 것은 3월 말 유행세가 정점을 지난 뒤 46일만이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감소세가 정체됐거나 증가세로 반등한 것인지는 다음 주 초 상황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방역 전문가들은 일단 감염 재생산지수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유행 규모가 감소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19 수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가 지난 4일 발표한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 예측' 리포트에 따르면 건국대 정은옥 교수 연구팀은 현재 수준의 감염재생산지수(0.69)가 지속될 경우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는 11일 3만700명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이어 2주 후인 오는 18일 2만 2200명으로 줄어든 뒤 4주 후인 6월 1일에는 1만 210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주 중 신규 확진자 수가 네자릿수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권오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공공데이터분석연구팀장은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1주일 후 전국 신규 확진자 수가 1만명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했고, 정일효 부산대(수학과) 교수는 현재 수준으로 유행이 지속될 경우 오는 11~17일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1만 6191명, 주간 일평균 사망자 수가 21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야외마스크 의무가 해제되고 곳곳에서 인파가 넘쳐나는 상황을 고려하면 감소세가 더디거나 기간이 짧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방역당국은 특히 지난 5일 어린이날에서 7~8일 어버이날 등 주말로 이어진 징검다리 연휴가 일상회복 방역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같은달 25일 실내 취식 허용, 지난 2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의 상황이 모두 반영되기 때문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부처님오신날 관불의식 8일 오전 광주시 서구 치평동 무각사에서 열린 불기256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서 불자들이 관불의식(아기부처님 목욕 시키는 의식)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전남도, 오늘부터 참여세대 모집

전남도가 청정하고 안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참여 세대를 9일부터 6월 3일까지 모집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은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도민에게 정부 지원금 외에 도비, 시군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설치비 자부담분(50%)의 40%를 도비·시군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전남도는 올해 지방비 17억원을 들여 1600여 가구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을 바라는 주택 소유자는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누리집(greenhome.kemco.or.kr)에서 회원가입 후 공단에 등록한 참여업체를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지방비 보조금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최종 사업 승인 후 해당 시군에 지원 신청을 하면 예산 범위에서 선착순 지원한다.

주택에 3KW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총 설치비 516만원 중 국비 258만원과 추가로 지방비 103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155만원만 자부담하면 된다.

3KW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는 연간 54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학입학전형에 수능 가장 많이 반영해야

교육인식 조사… '사교육비 부담' 응답률 20년새 13%↑

최근 10년 사이 대학입학 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한다는 시각이 늘고,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에 대한 국민 인식과 미래교육정책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입 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할 항목'에서 '고교 내신'을 꼽은 응답자는 2011년 35.0%에서 지난해 13.9%로 21.1%포인트나 하락했다. '수능'이라는 응답률은 2011년 25.5%에서 지난해 30.9%로 5.4%포인트 상승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조사에서 '인성 및 봉사활동'이 26.6%로 2위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에서만 '인성 및 봉사활동'을 1순위로 꼽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1순위로 모두 수능을 선택했다. 사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느끼지만, 여전히 사교육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자녀의 사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가계에 부담된다'는 응답은 2020년 기준 94.3%로, 20년 전인 2001년 81.5%보다 12.8%포인트 늘었다. 그러나 '과외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01년 10.5%에서 2020년 1.9%로 8.6%포인트 하락했다.

연구진은 "유·초·중·고 학생 자녀를 둔 가계에서는 대부분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때 부담하는 사교육비는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사교육 참여 비율과 부담 정도는 지난 20년간 변화했으나,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에는 변화가 없었다.

2001년과 2021년 조사에서 모두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로 가장 많은 학부모가 "남들이 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했다.

/연합뉴스

투자 경기·수도권 10억원 이상
(주)오천. 010-3605-5000

지분 부동산 삽니다
당일처리. 010-6837-4700

"개 식용 종식 공감대 형성…합의는 아직"

위원회 운영 2개월 연장 "대타협 위해 최선 다할 것"

작년 12월 출범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운영 기간을 내달까지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6일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추가 논의를 위해 위원회 운영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회는 작년 말 정부가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키로 하면서 설립됐다.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전문가, 정부 인사 등 21명으로 이뤄졌으며 당초 운영 기간은 지난달까지였다.

위원회는 "운영 초기부터 개 식용 문제에 대해 참여자들 간의 입장차가 있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 일환으로 식용 목적 개 사육현황을 조사했고, 개 식용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했다. 또 개 식용의 위생적 문제점, 현행법 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를 통해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모했다. 대만의 개 식용 전문가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현지 사례를 파악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미국·캐나다 등 북미대학에 한인 교수 4052명

하버드 159명, 수학·과학 분야 791명 가장 많아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대학에서 활동하는 한인 교수가 4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주중앙일보는 북미한인교수협회(KAUPA)의 '북미 한인 교수 현황 분석' 논문을 인용해 북미 주 공립·사립대학 등에서 활동하는 한인 교수(객원교수·전임강사 포함)가 미국 3941명, 캐나다 111명 등 총 4052명이라고 전했다.

단일 대학으로는 세계 최고 대학 중 하나인 하버드 대학이 15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웨일 코넬 의과대학 52명, 퍼듀대·텍사스 A&M대 각각 50명, 럿거스대 46명, 워싱턴대 43명, 뉴욕대(NYU) 42명 순이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주가 스탠퍼드대 38명,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31명, 서던캘리포니아대(USC) 23명 등 총 47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뉴욕(432명), 텍사스(309명), 매사추세츠(277명), 일리노이(177명), 펜실베이니아(175명) 순이었다. 전공별로는 수학·과학 분야가 791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영·경제·금융·농업 분야 629명, 엔지니어링 595명, 의학·치과학·약학·간호학 분야 525명, 교육·종교학 분야 359명, 컴퓨터 사이언스 202명 등이었다.

이번 조사는 KAUPA 회원인 최영배 리전트대 교수, 황성남 사우스이스트 미주리주립대 교수 등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지원을 받아 1년간 진행했다.

/연합뉴스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 등 다용도 부지, 임야, 매매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적벽돌외벽 스라브즙 129㎡(39평)
•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체 조성 가능
• 2층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2 전원 주택용 부지와 식재된 조경수 20여년생 8종 1천5백주 포함
•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신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종 1천5백여주 조경수 포함
•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가든,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9만원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용도 부지(주거 2종)
•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럽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접 남향 교통요지 시장인접 다가구 사옥 다용도 부지 4.220m2(1.276평) 매 ㎡ 9십만원

4 임야 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옹달샘 전원주택지 귀농·귀촌·휴양자 적합 매 ㎡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송다수자생 생약재배 캠핑장. 휴양지 농가주택 가능 매 ㎡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홈플러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영공인중개사 대표 김용주 010-3454-2389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 강(6개월 과정)
일 시 : 2022. 5. 3 (화) 오후7시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수강료 : 풍수 + 사주 20만원 (매월)

공개강좌(무료)
일 시 : 2022. 4. 26 (화) 오후7시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2246-1508

30년쯤전에 연락이후 소식을 모르는
기성권(승권) 67년생 남 찾습니다
친어머니 이 수 연
아버지는 법원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오래전사망
동생 이 재 선 HP. 010-5591-7208
연락 바랍니다

식품공장매매
전남 강진군 강진읍 현 가동중
HACCP 인증 (~2025년 1월)
멸균기, 금속검출기, 자동포장기 등 레토르트 제조 설비 완비
공장 대지면적 620㎡/ 총 면적 = 478평/ 건축면적 198㎡
경량철골구조(2018년 완공)/ 주택 포함 (신축, 넓음)
생산 제품 (네이버 평점 4.7) 및 HACCP 운영 도움 가능
매매가 6억 (모든 설비 포함)
매물 사진 및 추가문의 010-3614-3007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만약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연번	위치	기수 무연1번
1	전남 장성군 북이면 신월리 산 4-1	무연번호 1번~5번 까지

2. 분묘기수 : 무연분묘 1기 외4기
3. 개장사유 : 개인 재산권 권리 행사
4. 개장장소 : 장성 추모공원 봉안담 061-393-0985
5. 납골당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개장방법 : 공고기간 만료 후 화장하여 납골안치
8. 연 락 처 : 전남 장성군 북이면 4가 시장1길 6 황하영 010-3659-1652
9. 연락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부(호적), 제적,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연락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0. 신고방법 : 장성홈페이지와 1차 2차.광주일보 1차 2차 공고 분묘대행업체: 고창 효장묘개발: 대표 박 병 열 배상

2022년 5월 9일
공고인 : 박 병 열 (010-3651-4108)

자본감소공고

2022년 05월 04일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510,000,000원 중 금160,000,000원을 감소하여 금360,000,000원으로 하고, 자본감소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10,000원의 주식 16,000주를 무상소각하여 발행주식총수 51,000주를 35,000주로 감소할것을 결의하였음.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의 게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9일
주식회사 진호건설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세남로 1611
대표이사 은 철 홍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김영순(750813-XXXXXXX)
• 최후주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 83-11, 103동 205동 (한국아델리움)

피상속인 망 김영순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2느단417호로 신청하여 2022년 5월 2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5월 9일

• 상속인 : 1. 이준호(710922-XXXXXXX)
2. 이형래(020102-XXXXXXX)
3. 이채은(040802-XXXXXXX) 미성년자이므로 특별대리인 이금례
4. 이다현(060109-XXXXXXX) 미성년자이므로 특별대리인 김종진
5. 이윤지(070613-XXXXXXX) 미성년자이므로 특별대리인 김혜진

상속인1,2,3,4,5 주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 83-11,103동 205호 (한국아델리움)
• 신고기간 : 2022. 5. 9. ~ 2022. 7. 19.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1. 이준호의 주소

판 결 공 시

•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0고정813 폭행
• 피고인 : 서 정 란

위 피고인은 폭행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2년 4월 28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성 재 민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0년
光州日報 · 예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光州日報 지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충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운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